

# '제18회 전북 과학축전' 6~8일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서 '과학·기술의 만남, 새 미래 열다'

과학체험 프로그램 40개 운영... 체험형 탐구 활동·생활 속 발견 과학 원리 이해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원 등 5개 시군 15개 학교에 21대 차량 지원

'제18회 전북 과학축전'이 오는 6~8일 3일간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열린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과학과 기술의 만남,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과학축전은 과학에 대한 관심과 꿈을 키우고, 소통과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으며, 과학체험 프로그램 40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학생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체험형 과학탐구 활동을 비롯해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 원

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에 학생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실험을 활용해 이론적인 과학원리를 배우고, 직접 산출물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실험 설계 및 실행능력을 키울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행사에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원, 부안, 군산, 임실, 익산 등 5개 시·군 15개 학교에 21대의 차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과학축전'을 통해 지난 8월부터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장수 등 6개 시·군 30개교를 방문해 3,000여 명에게 과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과학축전은 과학체험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스마트 농생명 등 전북핵심산업과 로봇, VR 등 일차계 준비했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로 과학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미래과학자의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18회 전북 과학축전 포스터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은 3일 약학관 개관식을 연 가운데, 양오봉 총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전북대 약학관, 문 열다

150여석 규모 임상약과학연구실 등 들어서  
국시 준비실 등 학생들 실무 경험 공간도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은 3일 약학관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양오봉 총장과 약학대학 전임교원 및 재학생, 대학 약학회장 등 약학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배은주 약학대학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개관식에서는 최광훈 대학약사회장을 대신해 백경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축사를 했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나영화 약학교육협의회장은 영상 축사로 전북대 약학관 개관을 축하했다.

이번에 신축된 약학관은 연면적 4,233㎡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50여 석 규모의 계단형 대형 강의실과 학년별 강의실, 대학원 강의실, 교수 연구실 및 회의실, 의약품 정보 실습실, 임상 약과학 연구실 등이 들어섰다. 특히 약사 국가시험 준비실과 복약 지도 실습실 등 학생들이 국가 시험 준비와 다양한 약학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한편 2020년 개교한 전북대 약학대학은 개교 원년에 68억원 규모의 '첨단 식의약 소재 산업화' 과제에 선정되며 연구 역량을 강화했으며, 2022년에는 180억원 규모의 '제약산업 미래 인력 양성센터' 사업에도 선정돼 제약 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배은주 약학대학장은 "개교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과를 낸 약학대학이 약학관 개관으로 교육과 연구 환경이 더욱 탄탄해졌다"며 "이를 통해 전북대 약학대학이 미래 제약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약학관 개관으로 전북대 약대는 전국 어느 약대보다 훌륭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몇 년 안에 한국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가 이전하면 더욱 넓고 안정된 공간에서 약학 교육과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2회의실에서 '소통과 공감 함께 만드는 전북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북학부모협의회·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교육정책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소통과 공감 함께 만드는 전북교육'

전북자치도교육청, 학부모협의회-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교육정책 간담회  
소통·협력 강화 위해 마련... 서거석 교육감 "의견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일 창조나래 2회의실에서 '소통과 공감 함께 만드는 전북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북학부모협의회-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학부모단체인 두 조직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협의회 간 소통강화 및 전북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시군지역 협의회장 28명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정유미 전북학부모협의회장은 "학부모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달라"면서 "앞으로 학부모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열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학부모협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부모회와 학교

운영위원회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전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전북교육청은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9월 수능 모의평가 오늘 실시

9월 수능 모의평가가 4일 치러진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 모의평가에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1만7,139명이 응시한다. 이 중 재학생은 1만5,091명, 졸업생은 2,048명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9월 모의평가는 시험범위, 응시자 구성 및 규모, 출제경향의 수능과 가장 유사해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전국 단위 시험이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하다. 영어영역,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모의평가 문제 및 정답은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및 EBS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평가 결과는 10월 2일 발표되며, 개인별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이 기재된다. 다만, 절대평가 방식의 영어영역 및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등급만 기재되며, 한국사 영역 미 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같은 날 치러지는 9월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에는 도내 107개 고등학교 1학년 1만5,193명과 2학년 1만4,716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온라인 영양·식생활진단시스템 사용학교 담당자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식습관 코칭을 위해 영양교사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다. 그 일환으로 3일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온라인 영양·식생활진단시스템 사용학교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어린이 영양상담 전문가 초청 강의와 TF팀 영양상담 사례 발표, 분임별 지도 등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영양·식생활 진단시스템의 사용 방법과 최신 기

능 소개 △영양 상담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 및 실습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적용 사례 공유 등이다. 특히 지난해 전북교육청이 제작·보급한 워크북 '숨은 키 10cm를 찾아라'를 활용해 가정과 연계한 식습관 코칭 사례 및 영양수업을 활용한 집단 영양상담 사례발표는 온라인 영양·식생활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 담당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금연캠페인